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7-10호
 2017년 5월 26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 2010~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 총액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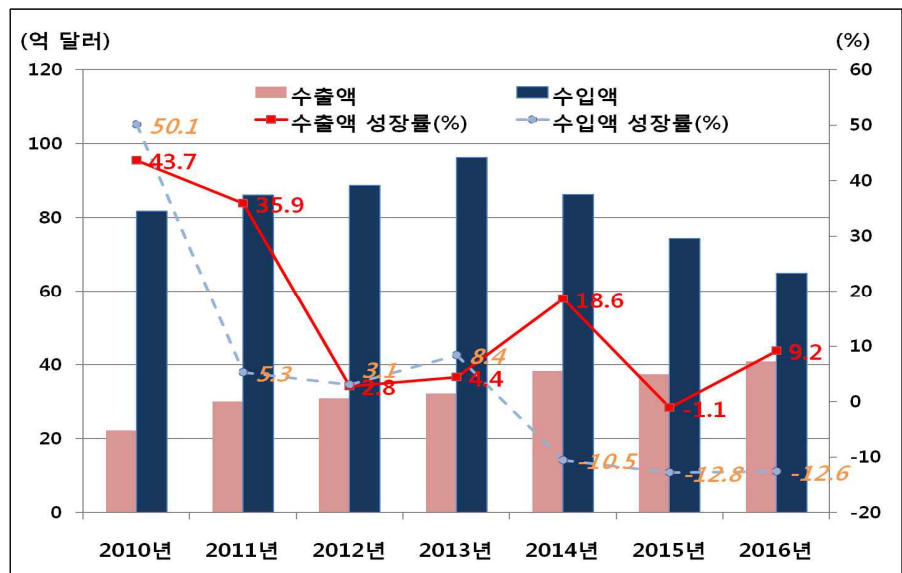
구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2010	22.12	43.7	81.76	50.1
2011	30.05	35.9	86.10	5.3
2012	30.88	2.8	88.73	3.1
2013	32.23	4.4	96.27	8.4
2014	38.21	18.6	86.19	-10.5
2015	37.37	-1.1	74.30	-12.8
2016	40.81	9.2	64.91	-12.6

자료 : 푸젠성통계국.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자료 : 푸젠성통계국(www.stats-sh.gov.cn), 2010~2016년 통계 공보를 바탕으로 KMI 작성

2016년 푸젠성 對타이완 수출액 40.81억 달러, 전년대비 9.2% 증가

2016년 푸젠(福建)성의 對타이완 수출입 총액은 105억 7,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했다. 이중, 수출액은 40억 8,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 푸젠성의 對타이완 수입액은 64억 9,100만 달러를 기록해 2014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타이완 신정부 출범 이후, ‘양안(兩岸, 중국과 타이완)’ 간 정치적인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타이완의 양안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 대륙은 양안 민간교류 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양안 경제사회 융합 발전도 촉진하고 있다. 푸젠성은 타이완과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무역 시범구를 통해 타이완 기업을 유치하며, 경제성장을 현저히 제고했다.

푸젠성은 평탄(平潭) 타이완상품 면세전시점, 푸젠자유무역시범구, 21세기 해상실크로드핵심구, 푸저우(福州)신구, 푸저우·샤먼(厦門)·취안저우(泉州)국가 혁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 등의 설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융자 환경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타이완 자본 유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저자 소개

린제민(林在明)
푸젠사회과학원 화교학인(华侨华人)
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사



연구 분야
화교학인, 지역경제, 자유무역시범구
및 '일대일로' 등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푸젠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로 약칭)는 타이완에 초점을 맞춰 설립되었고, '양안(两岸, 중국과 타이완)' 경제협력은 푸젠자무구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푸젠자무구는 설립 이후, '개혁의 실험기지, 양안 경제협력 심화 시범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 및 지역 개방 협력 거점'을 전략적 포지션으로 하여 제도 혁신, '선행선시(先行先试,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험함)', 개방의 최전방, 창구 및 통로 역할을 담당하며, 물류와 인력·정보·자금교류 등 생산소요의 연계융합을 추진하며 푸젠-타이완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1 푸젠 자무구의 발전 성과

푸젠자무구는 산업협력, 서비스·상품 무역, 금융협력, 인력 교류 등 방면에서 과감한 '선행선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여 항목의 對타이완 혁신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1. 對타이완 협력 혁신

對타이완 협력 혁신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투자관리 모델의 혁신이다. 푸젠자무구는 신속히 '일조일마(一照一碼)¹⁾', '단일창구 접수(一口受理)²⁾' 투자서비스 모델을 실시했으며, 이는 중국 자무구의 대표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둘째, 무역제도의 혁신이다. 푸젠자무구는 앞장서서 '단일창구(单一窗口, 싱글윈도우)' 모델을 실시했으며, 신용수주 제도, 복합자주담보 제도(多维自主担保制度)²⁾, 완성차 수입 일체화 쾌속 통관 제도, 세관 특수감독관리 및 원산지관리 개혁, 세관·검역부분 협력 쾌속통관 등 제도혁신을 이루었다.

셋째, 금융제도의 혁신이다. 對타이완 국제 인민폐 업무를 실시했으며, 양안 증권업 협력 등 금융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 최초로 양안 신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자무구 내 은행들은 타이완 기업 및 타이완 교포의 타이완 내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對타이완 국제 인민폐 대출은 중국 시범 지역 총액의 85%를 차지한다.

넷째, 사중(事中)·사후관리감독 강화이다. 리스크 예방관리 리스트를 구축하고, 관리정보는 '이장왕(一张网, 중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유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경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1) '일조일마(一照一碼)'는 과거 공장, 검역, 세무 등 각기 다른 부문에서 발급하던 허가증을 '영업집조(营业执照)'란 허가증으로 통합하고, 행정 처리시간도 대폭 간소화한 조치임.
2) 기업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때, 공통된 담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담보자금 이용 효율 및 담보 처리시간을 대폭 간소화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6	05-26
종합지수	806.26	846.27
일본 향로	653.60	667.26
구주 향로	1059.04	1103.87
미서부 향로	682.17	643.85
미동부 향로	860.49	862.53
한국 향로	556.25	599.47

주 : '01-06' 2017년 1월 6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6	05-26
종합지수	992.60	992.43
석탄	996.54	1033.39
곡물	770.59	824.31
금속광석	1030.54	882.92
정유	1239.27	1287.61
원유	1541.72	1541.72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리스크 예방을 강화했다.

다섯째, 타이완 기업들을 대상으로 건축, 회계심사, 전자상거래, 교육, 문화 및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 단계적 개방을 진행한 것이다. 2017년 4월 말까지 푸젠자무구는 이미 10차례에 걸쳐 240항의 혁신 조치들을 발표했고, 그중 86개 항목이 전국적 혁신조치에 속하며, 중국 전 지역의 양안 경제협력에 있어서 규범과 기준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 對타이완 최전방 플랫폼 구축

‘푸젠해협 청년교류캠프’, ‘샤먼 양안 청년 창예·창신·창커(创业·创新·创客, 창업, 혁신, 벤처사업을 뜻함) 기지’, ‘핑탄(平潭) 타이완상품 면세전시점’, ‘핑탄 타이완 혁신단지’, ‘푸저우 해협양안(선정[船政]) 문화혁신단지’, ‘타이완기업 급행 서비스센터’, ‘양안산업 교량센터’, ‘양안 지식재산권 싱크탱크’ 등 중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양안 교류협력의 최전방 플랫폼을 조성했다. 2016년 1~12월, 푸젠자무구에 설립된 기업은 3만 4,984개, 등록 자본금 6,640억 5,5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99.02%, 91.01% 증가했다. 그중 신규 중국기업은 3만 3,353개, 등록자본금 5,720억 6,3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101.16%, 94.24% 증가했다. 신규 외자기업은 1,631개, 등록자본금 919억 9,2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63.43%, 73.08% 증가했다3).

對타이완 개방영역은 의료, 교육, 건축, 설계, 관광, 인력자원, 전자상거래 등으로 확장했다. 최근 랑치싼장커우(琅岐三江口)병원, 양안문화혁신단지, 타이완인재중개기구 등 약 200개에 달하는 타이완 서비스업 프로젝트들이 이미 착수되었다.

3. 막힘없는 對타이완 교류통로 구축

푸젠자무구는 타이완 간 지리적·정책적 강점을 바탕으로 양안 간 화물, 서비스, 자금, 인력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혁신했으며, 對타이완 협력 창구로서 ‘양안 연계, 전국 서비스’의 가장 간편한 통로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핑탄구역에서 타이베이, 타이중(台中)까지 카페리 소요 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며, ‘항공 속도, 해운 비용’을 실현했다. 가장 먼저 ‘전자 타이완교포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푸젠성 호적이 아닌 주민도 ‘1회 유효 타이완 통행증’을 발급해 다른 성의 주민들이 ‘임시 거주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타이완 관광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안 직항 카페리 신청 속도도 간소화 하여, 전자 검역 등 자유 출입국 조치를 실시하여 양안 인력 교류 및 무역·화물환적의 간

3) 푸젠성의 공상국 기업등록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 4월 21일 푸젠자무구 설립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푸젠자무구에 설립된 기업은 총 4만 8,550개사, 등록자본금 9,447억 7,2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146.71%, 158.01% 증가했음. 이중 신규 중국기업은 4만 5,998개(자본금 8,067억 2,700만 위안), 외자기업은 2,552개(자본금 1,380억 4,500만 위안)임. 푸젠자무구의 각 구역별로 보면, 푸저우구역의 신규 기업이 2만 583개(자본금 3,100억 100만 위안), 샤먼구역의 신규기업은 2만 2,764개(자본금 4,050억 8,400만 위안), 핑탄구역의 신규기업이 5,203개(자본금 2,296억 8,800만 위안)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편한 통로를 만들었다.

또한 ‘간편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경제협력강화약정) 및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기본협정) 아래 화물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교부’⁴⁾를 실시했다. 또한, 타이완 인증서 및 검사검역 결과를 근거로 對타이완의 ‘현지(타이완) 관리, 통상구 수입 통과’ 급행 검역·방출 모델을 실시했다. 타이완의 과일에 대하여 ‘선 검사 후 통관 신고, 선 적재 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였고, 타이완 당국의 검역증서 등 제출을 면제해 주었다. 최근 푸젠은 타이완 식품, 농산품 수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타이완 식품 수입은 푸젠성 통상구 식품 수입 총 횟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타이완 식품 수입 총 회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타이완 수입 식품 품종은 1만 3,000종 이상에 달한다.

4. 양안 창업구직기지 구축

중국 정부는 양안 창업구직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첫째, 최고의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타이완기업 및 인력들의 입주를 유도했다. 2016년 4월 12일, 푸젠성 제12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푸젠)자무구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에는 ‘타이완교포에게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분야 편의 제공’, ‘對타이완 기업 및 주민의 자격 요구, 지분비율 제한, 경영범위 등 진입제한 조치 취소 및 간소화’, ‘화물 통관, 표준계량, 검사검역 인증, 운송도구 검사 등 다방면에서 협력 전개 및 정보 공유, 감독관리 상호 인증, 법집행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양안 청년 창업·창신·창커기지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샤먼구역의 양안 ‘싼창(창업·창신·창커)기지는 이미 9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푸저우구역의 해협(선정)문화혁신단지, ‘좌잉·우잉(左营·右营)’단지에는 이미 타이완 문화창의 기업들이 각각 14개, 23개가 입주했다. 랑치(琅岐)해협청년교류 캠프는 현재 빠르게 설립이 진행 중이며, 평탄타이완창업단지에는 이미 99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양안 대중창업 U-SPACE(众创·优空间)는 ‘對타이완 창업정책서비스의 직행차’, ‘양안 청년 창업 삶터’, ‘일대일로 대중창업중화 계획’ 등의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무구+해상실크로드+양안 대중창업’ 시범기지로 조성되며, 최초 입주기업은 약 40개 사이다.

5. 對타이완 경제융합시범구 설립

중국 정부가 對타이완 경제융합시범구를 설립하면서 시행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 첫째, 푸젠-타이완 산업협력 영역을 개척했다. ‘인터넷+’, 하이테크제조업, 금융서비스, 친환경·환경보호, 콜드체인물류, 국제전자상거

4) CEPA, ECFA 협정 하에 수입화물 수화인 혹은 대리인은 우대관세를 받게 되며, 세관이 수출자가 전송한 원산지 증명서(전자데이터)를 접수한 화물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서류) 제출을 면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했으며, 화물보다 늦게 증명이 도착하여 통관이 완료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함. 2015년 5월 푸젠자무구에서 먼저 실시한 후, 2016년 1월 1일 전국범위로 확대 실시됨.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래, 해운물류, 생물기술 등의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타이완의 ‘5대 산업계획’과 연계하여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둘째, 對타이완 지역성 해운물류중심, 상품무역중심, 양안 콜드체인물류중심, 양안 전자상거래산업원 등의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을 건설했다.

셋째, 양안금융혁신협력시범구를 설립했다. 국제 인민폐 여수신, 외환환전 및 주식거래 등의 업무를 전개했으며, 양안 합자은행, 합자 증권회사 등을 설립했다. 2017년 4월 말까지, 푸젠자무구에 설립된 금융기구 및 각종 ‘준’금융기구는 158개 및 6,100개에 달하며, 이는 설립 전에 비해 각각 30%, 358.8% 증가한 것이다. 10개 은행이 본점 및 인민폐 정산센터, 역외 은행업무 분점, 양안금융서비스센터 혹은 자산위탁관리센터 등을 설립했다. 19개의 타이완 금융기구가 푸젠성에 설립 혹은 지분참여 형식으로 지사를 세웠으며, 이는 중국 각 성중에서 2위에 달한다. 그 중, 타이완은행, 장화은행(彰化銀行), 화난상업은행, 협력금고(合作金庫)은행 등 4개의 타이완 은행이 푸저우에 들어섰다. 타이완 푸본(Fubon, 대만 최대의 금융그룹), 융평증권(永豐證券), First Holding 및 중국신탁은행 등이 샤먼구역에 입주했다.

6. ‘일대일로’ 중점 거점으로 부상

2016년 4월 ‘샤룽어우(厦蓉欧, 샤먼~청두~유럽)’가 Sea&Rail의 방식으로 타이완까지 연계되었다. 양안 해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ASEAN,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된다. ‘해상 실크로드’ 및 ‘육상 실크로드’의 물류통로를 연계했고, 푸젠자무구 및 ‘일대일로’의 연계를 실현하여, 양안협력의 국제시장 개척의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8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샤룽어우’ 열차는 이미 76회 운행되었으며, 2,185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그중 출경은 74회(화물가치 1.9억 달러), 입경은 2회(화물가치 75만 달러)이다. 그 외에 최근 푸젠자무구내의 ‘중국-ASEAN 해산물교역소’에 등록된 국제 회원은 350개 사로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들의 중요 해산물 교역시장으로 부상했다.

2 당면한 문제점

푸젠자무구는 양안(兩岸, 중국과 타이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춰 설립되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양안관계 요인이 존재한다. 양안 간 정치적인 신뢰가 부족한 점이 타이완의 양안 경제무역 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양안 경제 일체화 속도를 느리게 한다. 양안관계의 영향으로 푸젠자무구 對타이완 ‘선행선시’는 여전히 ‘단방향’ 국면에 처해 있고,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렵다.

둘째, 푸젠자무구의 내부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기초인프라, 부대산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푸젠자무구 내 영향력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적으며, 매개체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도 부족하다.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

셋째, 타이완의 ‘신남향 정책(新南向政策)⁵⁾’의 영향을 받는다.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신남향 정책’은 추진이 쉽지는 않겠지만, 타이완 당국의 장려와 유도아래에서 타이완 기업들의 이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타이완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분산되고, 향후 푸젠자무구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타이완 신정부는 타이완 기업들의 회귀정책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자무구의 발전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경제·무역협력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 푸젠-타이완의 산업사슬 연계가 충분이 완벽하지 못한 관계로, 타이완 자본 유치역량이 강하지 못하다. 푸젠-타이완 간 무역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푸젠-타이완 무역액은 양안 교역 총액의 6%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 성시 중에 6위에 머무른다. 또한 타이완 기업의 클러스터 효과가 크지 않다. 푸젠의 타이완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기계, 전자, 화학공업, 방직, 식품 등 업종이 주를 이루며,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산업사슬도 구색이 맞지 않고, 산업 고도화 추세에 따른 부담이 크다. 이는 푸젠 자유무역구의 對타이완 경제·무역 협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섯째, 공익사업(社会事业)이 낙후되어 있다. 푸젠자무구는 기존의 경제개발구 혹은 보세항구에 설치되었고, 산업경제에 치중한 관계로 공익사업 기능은 현지 정부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계획이 공익사업 발전 계획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개선 방안

2015년 4월 21일 설립된 푸젠자무구는 이제 2년이 지나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당초 설립 목적인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對타이완 서비스 무역 개방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 타이완의 건설, 계획, 의료 및 관광의 4대 산업 이외에 교육, 법률, 회계 및 문화·영상 등의 분야는 더욱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된 산업의 인증 및 영업허가 제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샤먼-진먼(金門, 샤먼과 마주하고 있는 타이완 관할의 섬)’, ‘푸저우-마주(馬祖, 푸젠성 민장강 어귀 앞바다에 있는 타이완 관할의 섬)’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진먼과 마주의 투자자 심사, 지분비율, 경영범위 등 진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 특히 교통·해운서비스, 관광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둘째, 對타이완 화물교역 자유화를 실현해야 한다. 검사검역 ‘전추후이(前推后移)’ 통관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전추(前推)’는 인가받은 타이완의 제3자가 중국에서 검역을 완료하는 것이며, ‘후이(后移)’는 상품이 자무구에 진입후 샘플

5)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및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플링 검사를 통해 상품 통관 속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세구’의 확장 개념이다. 전 단계에서의 심사비준을 취소하거나 혹은 심사승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특히 식품(보건식품), 화장품, 약재, 약품 등의 심사승인 권한을 자무구 내의 식약 감독·검역부문으로 이양해야 한다.

셋째, 양안 간 인력 교류 편리화를 촉진해야 한다. ‘마웨이(马尾, 푸저우시의 구)-마주(马祖)’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마웨이 및 마주의 지역 협동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자무구 ‘양마원(两马园)’을 설립해야 한다. 타이완 사회조직이 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샤먼-진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여, ‘샤먼-진먼’ 공동 생활권으로 형성해야 한다. 해협양안 국경경제협력구를 건설하여, 샤먼과 진먼의 심층 융합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금융영역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양안 금융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인민폐 국제사용, 자본 프로젝트의 환전, 국제 투융자 금융혁신 시범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타이완 금융기구가 직접 평탄구역에 분소·분행을 설립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구역내 각 금융기구가 시범적으로 인민폐와 타이완달러 직접 정산 업무를 시범 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타이완 은행이 중국에서 영업기구를 설립하고 타이완 기업들에게 인민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대상은 타이완 투자자와 동일시되는 제3국 기업(자무구내 기업)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해운 편리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푸젠자무구 평탄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자무구에서 해운 택배의 국제 및 홍콩·마카오·대만 환적 업무를 허가해야 하며, 타이완과 감독관리 상호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물류총창고(虚拟仓库, virtual warehouse)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혼재된 컨테이너가 창고에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양안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푸젠자무구의 對타이완 ‘선행선시’가 산업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이완지역 선진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업 등 산업의 결집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플랫폼과 매개체 건설을 진행하고, 하이테크기술산업, 금융서비스업, 해운물류업, 건강산업 및 현대농업 등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4 향후 발전 전망

향후 푸젠자무구의 혁신은 푸젠과 타이완의 ‘점 대 점’, ‘구역 대 구역’, ‘도시 대 도시’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양마원’, ‘양면 생활권(샤먼, 진먼)’, ‘양안 공동정원(共同家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과감한 ‘선행선시’ 혁신과 對타이완 강점 부각

최근 양안 간 양방향 협력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푸젠자무구는 적극적으로 對타이완 ‘선행선시’ 조치들을 혁신해야 하며, 타이완 기업의 업그레이드 발전, ‘일대일로’ 건설 참여 및 타이완 주민, 특히 타이완 청년이 자무구에서 창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업 및 구직 등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푸젠자무구는 양안 간 창업, 과학기술,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부각시켜야 한다.

2. 對타이완 새로운 통로 개척과 지리적 강점 부각

푸젠자무구는 타이완과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對타이완 교류 협력의 새로운 통로를 개발하고, ‘점 대 점’, ‘구역 대 구역’, ‘도시 대 도시’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푸저우 구역은 ‘마웨이-마주’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자무구 ‘양마원’ 건설을 추진하여 푸저우구역과 섬의 전면적인 경제무역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 샤먼 구역은 ‘샤먼-진먼’ 교류협력을 심화하여 자무구 ‘양먼원’ 건설을 촉진하고, 양지역 통관검역 정보 공유를 통해 ‘샤먼-진먼’ 지역의 경제무역 및 주민 교류를 편리하게 해야 한다.

3. ‘서쪽 진출, 동쪽 개발’과 자무구 대외연계 통로 구축

푸젠자무구는 ‘일대일로’ 전략의 해상과 육상 교차점이다. 중국, 타이완 및 동남아, 유럽을 밀접하게 연계시켜 푸젠자무구의 대외 연결통로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샤룽어우’ 국제화물열차 출발점을 타이완까지로 확장하고 해협, 유라시아대륙을 가로지르는 ‘타이샤룽어우(台厦蓉欧)’ 물류통로를 구축해야 한다. ‘샤룽어우’가 서쪽으로 진출할 때, Sea&Rail 복합연계운송을 통해 동쪽 타이완까지 연장하고,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아세안까지 확장하여 자무구와 및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

4. 과학혁신 R&D 중심 설립과 타이완 인재 거점 구축

푸젠자무구는 對타이완 인재 제한을 완화하여 타이완 인재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무구를 타이완 인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 양안 간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무구 과학기술 혁신은 고급 인재와 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푸젠-타이완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동시에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한 해외 학력, 학위, 기능 라이선스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물경제 전환·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이완 청년창업기지 건설을 보완해야 한다. ‘민혁 e가(民革e家)’ 정보교류플랫폼을 통해, 양안 청년 교류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5. 양안 전자상거래산업원의 구축

푸젠 국제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핑탄 해협 양안 전자상거래 경제협력시범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핑탄~타이완의 카페리 항로를 활성화시키고, 타이완공항을 환승거점으로 하여, 타이완 항편을 통해 상품을 전세계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역 내 배송센터, R&D 센터, 물류전략센터를 설립하여 양안 전자상거래 산업사슬을 조성한다. 양안 전자상거래 협력구 건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설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부대설비를 개선하고, 국제전자상거래 물류원 및 국제보세창고를 건설하며, 국제온라인쇼핑, 보세직판, 수출 전자상거래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6. 자무구 사회사업 촉진

중국 정부는 푸젠자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합자 민영 의료기관을 설립한다. 계획 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료시설 용지를 남겨둔다. 첨단 민영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약 및 의료기계 R&D 개발을 지원한다. Cloud Medical Treatment 서비스, 의료중개컨설팅, 의료보험 등 의료 서비스 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의료서비스 역량을 제고한다.

둘째, 원거리 의료 등 신형의료 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킨다. 원거리 의료 서비스를 전개하고, 기초 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주변 지역 주민의 진료 문제를 해결한다. 원거리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무구 병원, 기초 위생서비스기구 및 3급 병원 의료정보 플랫폼 상호연계를 촉진한다. 3급 병원은 원격 화상 회진 및 병리학적 진단, 의료자문 등을 담당한다.

셋째, 문화사업 발전을 촉진한다. 문화산업 및 대외 문화무역 발전을 중시하고, 정책을 강화하여 자무구의 문화관련 정책, ‘선행선시’ 조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넷째, 관광사업 발전이다. 관광 자유도를 높여, 인원 유동을 편리화하고, 자무구 매력도를 제고해야 한다. 관광의 파급 효과를 제고하여, ‘일대일로’ 국제관광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칼럼 원문

福建自贸区现状及发展方向

福建自贸试验区因台而设，因台而兴。深化两岸经济合作是福建自贸试验区的最大特色。自挂牌以来，福建自贸试验区紧紧围绕“改革试验田、深化两岸经济合作示范区、21世纪海上丝绸之路沿线国家和地区开放合作新高地”战略定位，充分发挥制度创新、先行先试、开放前沿、窗口通道等优势，率先推进两岸物流、人流、信息流、资金流等要素资源对接融合，持续深化闽台交流合作。

一、发展成果

福建自贸试验区从产业合作、服务贸易、货物贸易、金融合作、人员往来等方面大胆先行先试，实施100多项对台台创新举措，取得了重要成果并得到中央领导的高度肯定。

1、创新对台合作优势。一是率先创新投资管理模式。在全国率先创新“一照一码”、“一口受理”投资服务模式，被入选全国自贸试验区最佳实践案例。二是率先创新贸易制度。率先实行“单一窗口”、“三证合一”，信任接单制度、多维自主担保制度、整车进口一体化快速通关制度、海关特殊监管、原产地管理改革、关检快速验放等制度创新。三是率先创新金融制度。率先实施对台跨境人民币业务、两岸证券业合作等金融开放政策，在全国首创两岸征信查询系统，区内银行可以查询台资企业和台胞在台湾地区的信用信息。对台跨境人民币贷款提款额占到大陆试点业务总量的85%。四是加强事中事后监管。率先建立风险防控清单、监管信息共享“一张网”，利用大数据建立市场竞争秩序监测体系，强化预警、监测和风险防控。对台有序开放建筑、会计审计、电子商务、教育、文化、医疗等领域。截至2017年4月底，福建自贸试验区已通报实施十批次240项创新举措，其中属全国创新举措87项，为深化两岸经济合作提供了范本与标杆。

2、完善对台合作前沿平台。积极推进福建海峡青年交流营地、厦门两岸青年创业创新创客基地（简称“三创基地”）、平潭台湾商品免税市场、平潭台湾创业园、福州海峡两岸（船政）文化创意园，“台企快车服务中心”、“两岸产业搭桥中心”、两岸知识产权智库等重大项目建设，进一步健全两岸交流合作前沿平台。2016年1-12月，福建省自贸试验区共新增企业34984户，注册资本6640.55亿元人民币，分别同比增长99.02%、91.01%。其中，新增内资企业33353户，注册资本5720.63亿元人民币，分别增长101.16%、94.24%；新增外资企业1631户，注册资本919.92亿元人民币，分别增长63.43%、73.08%。另据省工商企业注册系统，2015年4月21日挂牌起至2016年12月31日，福建自贸试验区共新增内、外资企业48550户，注册资本9447.72亿元人民币，分别同比增长146.71%、158.01%。其中，新增内资企业45998户，注册资本8067.27亿元人民币，分别增长147.85%、159.23%；新增外资企业2552户，注册资本1380.45亿元人民币，分别增长127.86%、151.11%。其中，福州片区新增企业20583户，注册资本3100.01亿元人民币，分别同比增长182.04%、154.88%；厦门片区新增企业22764户，注册资本4050.84亿元人民币，分别同比增长124.67%、169.93%；平潭片区新增企业5203户，注册资本2296.88亿元人民币，分别同比增长131.35%、143.12%。闽台产业合作的范围进一步扩大，对台开放领域拓展到医疗、教育、建筑、设计、旅游、人力资源、电子商务等。目前，已有琅岐三江口医院、两岸文化创意园、台湾人才中介机构等近200项对台服务业项目已经落地。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3、畅通对台交流交往通道。福建自贸试验区充分发挥对台区位与政策叠加优势，创新两岸货物、服务、资金、人员等要素流动举措，进一步提升对台合作窗口效应，成为连接两岸、服务全国的最便捷通道。如平潭片区至台北、台中的客滚轮航线仅需2.5小时，实现“空运速度、海运成本”。率先在全国启用电子台胞证、率先签发非闽户籍居民“一次有效往来台湾通行证”，率先实行外省居民免于提交暂住证即可办理赴台旅游通行证，简化两岸直航客轮申报手续，实施电讯检疫等自由进出措施，成为两岸人员往来和贸易中转的便捷主通道。在全国首创“简化CEPA以及ECFA项下货物进口原产地证书提交需求”措施，采信台湾认证认可和检验检测结果，对台湾实施“源头管理、口岸验放”快速验放模式，对台水果实行“先验收后报关、先上架后抽检”，对台湾水果免于提供台湾官方检测证书等。目前，福建口岸已成为台湾地区食品、农产品输往大陆最重要口岸之一，台湾食品进口货物批次占福建口岸进口食品总批次约60%，占全国进口台湾食品总批次的一半以上，进口食品品种超过13000种。

4、创建两岸创业就业基地。一是创造最优惠的政策环境，吸引台资企业和人员向区内聚集。2016年4月12日，福建省十二届人大常委会在全国率先通过《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条例》，如“为台胞提供医疗保险、养老保险等社会保障方面的便利”；“取消或放宽对台湾地区企业和居民的资质要求、股权比例限制、经营范围等准入限制措施”；“货物通关、标准计量、检验检测认证、运输工具查验等诸多方面开展合作，逐步实现信息互换、监管互认、执法互助”等。二是打造两岸青年“三创”基地。如厦门片区的两岸三创基地已有93家企业签约入驻，福州片区的海峡（船政）文化创意园、“左营·佐赢”园区已分别入驻台湾文创企业14家、23家，琅岐海峡青年交流营地正在加快筹建，平潭台湾创业园签约企业有99家。两岸众创·优空间推出对台创业政策服务直通车、两岸青年创业栖息地、“一带一路”众创中华计划等六项服务举措，加快打造“自贸区+海丝+两岸众创”示范基地，首批入驻企业由40家。截至今年4月，在福建就业创业的台湾青年有9000余人，主要集中在各类青创基地、台资企业、民营企业、高校和部分企事业单位等，初步形成规模集聚示范效应。

5、创立对台经济融合示范区。一是拓展闽台产业合作领域，重点发展互联网+、高端制造业、金融服务、绿色环保、冷链物流、跨境电商、航运物流、生物技术等产业，与台湾“五大产业计划”衔接，推动一批合作项目落地。二是打造对台区域性物流航运中心、商品贸易中心、两岸冷链物流中心、两岸电子商务产业园等商贸合作平台。三是建设两岸金融创新合作示范区。开展跨境人民币借贷、外币兑换和股权交易等业务，设立两岸合资银行、合资牌照证券公司等金融机构。截至2016年3月底，已入驻金融机构147家，比设立自贸区前增加39家。彰化银行福州分行成为大陆首家开业即可开办人民币业务的台资银行，建设银行在区内设立国家首家总行级“海峡两岸跨境金融中心”，全国首家台企联合保险代理公司落户福州片区。据福建省自贸办统计，截至2017年4月底，福建自贸试验区内分别设立金融机构和各类准金融机构157家和6100家，比挂牌前分别增长30%和358.8%；10家银行设立总行级两岸人民币清算中心、离岸银行业务分中心、两岸金融服务中心或资产托管中心。19家台湾金融机构在闽设立或参股设立分支机构，在大陆各省份中居第二位。其中，台湾银行、彰化银行、华南商业银行、合作金库银行4家台资银行落户福州。台湾富邦财险、国泰人寿、国泰财险等4家台资保险公司在福州设立保险机构。富邦财险、永丰证券、第一金控、“中国信托银行”等机构落户厦门片区。

6、成为“一带一路”重要节点。2016年4月，首发的“厦蓉欧”通过海铁联运方式将厦蓉欧班列起点延伸至台湾地区，形成一条跨越海峡、横贯亚欧大陆，连接东盟、中亚和欧洲地区，串联起“海丝”与“陆丝”的物流大通道，实现福建自贸试验区与“一带一路”无缝对接，成为两岸携手沟通拓展国际市场的新通道。据统计，自2015年8月16日至2016年12月31日，“厦蓉欧”班列已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累计开行76班次，发行2185集装箱。其中，出境74班次，货值1.9亿美元；进境2班次，货值75万美元。此外，自贸区内的中国—东盟海产品交易所境外会员有350家，也成为21世纪海上丝绸之路沿线国家和地区重要的海产品交易市场。

二、面临的问题

- 1、**两岸关系因素**。由于两岸政治互信不足，台湾方面对两岸经贸关系发展的蓄意阻挠，两岸经济一体化进程十分缓慢。受两岸关系影响，福建自贸试验区创新对台先行先试仍处于“单向”局面，成效难以彰显。
- 2、**自身因素**。由于基础条件、产业配套等原因，我省自贸试验区内目前有影响力的项目少且承接载体不足，有待进一步做强做大。
- 3、**台湾“新南向政策”的影响**。蔡英文当局的“新南向政策”尽管实施不易，但在台湾当局鼓动和诱导下，台商转移投资仍不可小觑。台商投资大陆的分流效应，将对福建自贸试验区建设带来不利影响。同时，台湾新当局鼓励台商回流政策可能产生放大效应，不利于自贸试验区建设发展。
- 4、**经贸合作空间将被进一步压缩**。闽台产业链配套不够完善，对台资吸引力不强。一是闽台贸易规模较小。闽台贸易额约占两岸贸易总额的6%，居大陆各省市对台贸易额第五位。二是台资企业集聚效应不明显。福建台资企业以劳动密集型的机械、电子、化工、轻纺、食品等产业为主，附加价值不高，产业链不配套，产业集聚效应不强，转型升级压力大，有可能挤压福建自贸区的对台经贸合作空间。
- 5、**社会事业发展滞后**。福建自贸试验区都设在经济开发区或保税港区，由于侧重产业经济，社会事业功能依赖当地政府，土地规划尚未纳入社会事业发展规划。

三、改善方案

- 1、**继续扩大对台服务贸易开放**。进一步扩大对台服务业开放，除开放采信台湾建筑、规划、医疗、旅游四大行业外，尚需持续开放教育、法律、会计、文化影视等行业，并要破解已开放行业的认证与执业局限。深化厦门—金门、福州—马祖交流合作，进一步放宽金门、马祖投资者资质、股比、经营范围等准入限制，重点在交通运输服务、旅游服务、商贸服务、专业服务等领域取得突破。
- 2、**继续推动对台货物贸易自由**。创新检验检疫“前推后移”通关办法。“前推”指检验在大陆认可的台湾第三方完成，“后移”指产品进入自贸区后进入抽样检验，提高产品通关速度，逐步构建大保税区。取消前置审批或下放审批权限，可选择性把食品（保健品）、化妆品、中成药、药品等审批权限下放到自贸片区食药监局。
- 3、**继续促进两岸往来便利化**。深化“马尾—马祖”交流合作，探索马尾与马祖的区域协同发展机制，加快推进自贸试验区“两马园”，引进台湾社会组织融入社区生活的社会管理体制；深化“厦门—金门”交流合作，探索建设厦门—金门共同生活圈，推动建立“海峡两岸跨境经济合作区”，促进厦门与金门的深层次融合发展。
- 4、**继续扩大金融领域对台开放**。积极推进两岸金融合作，扩大人民币跨境使用、资本项目可兑换、跨境投融资等金融创新试点范围；支持台资金融机构直接在平潭自贸区设立分支机构，允许区内各金融机构试点人民币与新台币直接清算；台湾地区的银行在大陆的营业性机构经营台资企业人民币业务时，服务对象可包括被认定为视同台湾投资者的第三地投资者在自贸试验区设立的企业。
- 5、**继续推动航运便利化**。围绕福建自贸区平潭片区建设，允许自贸区试点海运快件国际和台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港澳中转集拼业务，对台试行监管互认；设立物流总仓（虚拟仓）管理机制，实行整合货柜进仓后分拨；

6、继续推动两岸产业合作。福建自贸区对台先行先试在产业领域，应以推动台湾地区的先进制造业、战略性新兴产业、现代服务业等产业的集聚发展为目标，积极依托各种平台与载体建设，重点推进高新技术产业、金融服务业、航运物流业、健康产业、现代农业等的合作与实践。

四、今后发展

今后，福建自贸试验区要创新思路，促进闽台“点对点”、“片对片”、城市对城市合作取得新突破，进一步加快“两马园”、“两门生活圈”和“两岸共同家园”建设。

1、大胆创新先行先试，凸显对台特色与优势。当前，两岸双向合作、双向互动面临新困难的形势下，福建自贸试验区要创新对台先行先试新举措，在支持大陆台资企业转型升级、参与“一带一路”建设，以及完善台湾民众特别是台湾青年在自贸区创业就业等方面搭建更多平台，进一步凸显福建自贸试验区在两岸产业、科技、社会、文化等领域合作特色与优势。

2、开拓对台合作新通道，凸显对台区位特色。福建自贸试验区对台区位独特。要不断挖掘对台交流合作新通道，在点对点、区对区、城市对城市上取得突破。福州片区深化马尾马祖交流合作，加快推进自贸试验区“两马园”建设，实现区岛全面经贸对接。厦门片区深化厦门金门交流合作，加快推进自贸试验区“两门园”建设，实施两地海关检验检疫部门信息“三互”，实现厦金两地经贸以及居民往来便利化。

3、突出“西进东拓”，打通自贸区对外连接通道。要突出“西进东拓南下”，将福建自贸试验区与“一带一路”战略相对接，打造成为“海丝”与“陆丝”的节点，让中国大陆、台湾地区和东南亚以及欧洲紧密串联在一起，不断扩大福建自贸区对外链接通道。要将“厦蓉欧”国际货运班列起点延伸至台湾，形成一条跨越海峡、横贯亚欧大陆的“台厦蓉欧”物流大通道。“厦蓉欧”在向西进军的同时，通过海铁联运向东延伸至台湾地区，通过与海上丝绸之路连接延伸至东盟经济体，打通自贸试验区与“一带一路”连接通道。

4、建立科创研发中心，打造对台人才高地。自贸区应放宽对台人才的限制，降低台湾人才的引入门槛，将福建自贸区打造成对台交流合作的人才高地。一是加强两岸科技创新合作。自贸区科技创新离不开高素质人才，因此要加强闽台高校和科研院所合作共建高水平研发机构。同时，要建立更加开放便利的境外学历、学位、技能等级认定机制。二是以大数据引领创新驱动，推动实体经济转型升级。推动大数据、“互联网+”等同制造业相融合，推动台资企业转型升级。三是完善台湾青年创业基地建设，依托“民革e家”信息交流平台，创新两岸青年交流互动模式。

5、打造两岸电子商务产业园。提升福州跨境电子商务公共服务平台、平潭海峡两岸电子商务经济合作实验区水平，充分利用平潭至台湾的轮船航线，以台湾机场为中转站，利用台湾飞机航线将商品发送到全球。设立区域采购配送中心、研发中心、物流运筹中心，完善跨境支付、跨境物流、跨境售后等服务环节，逐步形成两岸电子商务产业链。依托两岸电商合作区建设，完善电商物流枢纽仓储配套设施，建设跨境电商保税物流园、跨境保税仓储中心，拓展跨境网购、保税直销、出口电子商务等业务。

6、加快发展自贸区社会事业。一是设立合资高端民营医疗机构。合理调整规划方案，预留区块医疗用地，积极引进高端民营医疗机构。支持发展医药和医疗器械研发、云医疗服务、医疗中介咨询、医疗保险等医疗服务创新机构，提升医疗服务能力。二是发展远程医疗等新兴医疗服务模式。开展远程医疗服务，提高基层医疗服务水平，解决基层和边远地区民众看病难、就医难问题。建立远程医疗服务体系，促进自贸区医院、基层卫生服务机构与三级医院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医疗信息平台互联互通，由三级医院负责提供远程视频会诊、病理诊断、影像诊断、远程门诊咨询等医疗服务。三是加快文化事业发展。重视发展文化产业和对外文化贸易，强化政策导向支持，确保自贸试验区的各项文化政策、先行先试举措落实到位。四是加快旅游事业发展。提高旅游进入自由度、人员跨境流动便利度，增强自贸区要素吸引力，提升旅游带动效应，促进“一带一路”跨境旅游交流合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 발표
- 초상국 그룹, 19개 '일대일로' 연선국가 항만에 20억 달러 투자
- 철도 컨테이너 복합운송 '13·5' 발전 계획 발표
- 징진지(京津冀) 항만군 발전 가속화, 국제급 항만군 구축
- 중국-캄보디아, 해양관측 스테이션 공동 설립 협정서 체결

해운 · 항만 · 물류

- 칭다오항(靑島港) 자동화터미널 운영 개시
- 다롄항, 3년간 '그린 항만' 건설을 위해 7억 위안 투자
- China Merchants Port와 SINOTRANS&CSC,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 진행
- 닝보, '국제허브항'에서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와이까오차오(外高橋)조선, 31.8만 톤급 VLCC 인도
- 텐진 동장(東疆)보세구, 아시아 최초 크루즈 배송기지 건설 예정

- 중국선박중공그룹(CSIC), 하이커우시(海口市)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 중국수출입은행(EXIM), 푸젠성 3,500억 위안 융자 지원 제공
- CCSC그룹, 렌원강항그룹과 공동으로 휘얼귀스 내륙항 지분 인수

해양 · 수산

- 국가해양국, <남극탐사활동 환경영향평가 관리규정> 발표
- <국가해양국 보하이(渤海) 생태환경보호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중국-칠레 정부 간 남극협력 MOU 체결
- 중국, 6개 국가와 극지분야의 양자협력 MOU 체결
- 2017년 저수산 수산물 무역 빠른 성장
- 농업부 해양어업자원 보호 법률 제정, 바다목장 건설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개위와 국가해양국은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공동 발표했으며, '13·5' 기간 해양경제발전의 기본방향, 목표 및 주요임무를 규정했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해양경제를 강대하게 발전시키고, 해양경제의 공간을 확대시켜 해양경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계획>은 해양경제 발전구조 최적화, 해양산업 구조조정 추진, 해양경제 혁신발전 가속화, 해양생태문명 건설 강화, 해양경제 협력발전 공간 확대 및 해양경제체제 개혁 심화 등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주요 임무를 제시했다. 또한, 해양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 제도 시스템 보완, 정책조정 강화, 모니터링·평가 실시, 이행체제의 완전한 구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양경제 발전의 문제점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과 혁신을 심화시키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촉진한다. 해양경제구역 분포를 최적화시키고, 해양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며 해양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해양에 대한 개발과 보호를 과학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해양경제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해양경제 발전패턴을 속도·규모 중심에서 질적 편익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해양경제의 발전공간은 계속 확장되고, 종합능력과 질적 편익은 한 층 더 제고되며 해양산업구조는 더욱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해양과학기술력이 강화되고, 해양생태문명 건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해양경제에 관한 국제협력도 중대한 성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해양경제에 대한 조정능력과 공공서비스 능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육·해 통합 및 인간과 바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해양발전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자료 : 中国港口, 2017. 5. 12.>

2 초상국그룹, 19개 '일대일로'연선국가 항만에 20억 달러 투자

초상국그룹(CHINA MERCHANTS GROUP)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자 및 탐색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상국그룹에서 투자를 진행한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는 19개 국가와 지역의 49개 항만에 분포되었는데 대부분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요 항만이며 투자총액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2016년 연말까지 초상국그룹의 해외기업 총자산은 4,500억 위안, 해외기업은 총 184개에 달했으며 5대주의 43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의 항만, 물류, 산업단지 및 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일대일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초상국그룹은 '협력, 공동발전'이념으로 해당국의 협력 파트너와 이익공동체를 형성하여 먼저 시장을 확대하고, 함께 가치를 창조하고 나누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리젠홍(李建红) 초상국그룹 이사장은 "'일대일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공동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협력이념을 기반으로 주최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주최국의 이익을 충분히 수용하여야만 자신의 이익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무역산업협력구역의 모델은 중국기업의 단체로 해외에 진출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탐색과정이다. ‘일대일로’ 연선의 대부분 국가들은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제정하여 산업단지를 함께 건설하고, 중국의 생산능력 이전을 통해 글로벌 가치체인체계에 유입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중요한 기회이자 ‘일대일로’ 건설의 관건적인 돌파구이다.”고 설명을 보충했다.

현재까지 초상국그룹은 해외항만 총 투자액은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항만들은 19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스리랑카 콜롬보항과 함판토타항, 지부티항, 나이지리아 틴켄 터미널, 토고 로메 터미널, 터키 콤포트 터미널 등을 포함한 49개 항만인데 대부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요 항만들이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7. 5. 16.>

3 칭다오항(靑島港) 자동화터미널 운영 개시

4월 초, 글로벌 정기선 시장은 2M, OCEAN Alliance와 THE Alliance 3대 얼라이언스의 ‘3강 정립(三强鼎立)’ 구도로 새롭게 개편되었지만, 그로 인해 세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인 상하이항의 병목 문제도 초래되었다. 항만에 집중 및 적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연구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화터미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3년여 간의 연구개발 및 건설을 거쳐 5월 11일,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동 터미널은 현재 세계에서 자동화 수준과 하역효율이 가장 높은 컨테이너터미널이다.

2015년 6월 27일, 칭다오항그룹(靑島港集团)과 전화중공업(振华重工)은 전자동화터미널의 일괄수주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12월, 칭다오 자동화터미널은 기초 시공을 완료했으며, 작년 7월, 7대의 크레인과 38대의 AGV, 38대의 야드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설비가 설치되었다.

올해 3월 15일,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은 첫 선박 하역작업을 개시했다. 그 중, 안벽크레인 평균 작업효율은 시간당 25.59Move, 선박작업시간 효율(船时效率)은 시간당 129.9Move이다. 총 작업과정은 6.78시간 지속되었으며, 892개 컨테이너를 적재했다.

5월 11일, 13,386TEU급의 Coscon France호가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에 정박하였다. 터미널 현장의 모든 작업은 무인작업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현재 자동화터미널의 두 개 선석 작업은 후방 생산제어 센터의 9명 원격조종사가 배치되며, 전통 터미널이 6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여, 인건비의 약 85%가 감소하고 작업효율은 약 30% 제고되었다. 터미널의 설계 작업효율은 시간당 40Unit이다.

청신농(成新农) 칭다오항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통적인 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의 강점은 첫째, 안전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점이다. 하역장의 무인작업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보장을 실현하였다. 둘째, 터미널의 작업효율이 30% 이상 제고되었고,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셋째, 터미널의 종합물류 원가와 항만작업원가는 전통 터미널에 비해 20~30% 감소되었다. 넷째, 터미널의 생태환경이 개선되었다. 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기이며, 이는 청정에너지이다. 터미널의 자동화 건설은 칭다오의 항만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하였다.”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은 치엔완(前湾) 항만구역 4단계 5~10호 선석에 위치하여 있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으며 안벽길이 2,088미터, 종심 784미터, 전방수심 (-)20미터, 연간 처리능력 520만 TEU로, 세계 최대의 2만 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있다. 칭다오항 자동화 터미널은 구역의 기능구분이 명확하다. 해당 터미널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해상전환구역(海侧作业区), 수평운행시스템(水平运作系统)구역, 수문구역을 포함한 육상전환구역(陆侧交换区)으로 구분된다. 자동화 하역작업은 바다에서 육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우선 자동화 크레인을 통과하게 된다. 해상작업구역에서는 운송시스템을 통해 선박을 해상전환구역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야드 크레인으로 화물을 육상전환구역에 전달한다.

또한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의 건설은 원가가 낮고 건설주기가 짧으며, 스마트화·고효율·안전·친환경이라는 ‘칭다오 모델’을 창조했다. 2013년 10월, 터미널사업 계획이 정식 착수되어 올해 5월 상업운업을 시작하기까지 단 3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의 동일 유형의 터미널이 8~10년 거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건설 업무량을 완성했고, 건설원가는 해외 동일 유형 터미널의 75% 수준이었다.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은 연구개발 및 건설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술난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칭다오항의 컨테이너 작업·관리의 선진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생산업무 체계를 설계하고, 터미널의 전반적인 평면구도를 계획하였다. 구체적 목표와 기술규격을 수립하여 보다 저렴한 원가로 단시간 내 총체적인 자동화터미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자동화터미널 스마트 생산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터미널의 하역운송설비는 전부 전력으로 가동되며 단위당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 제로 배출 및 무조명 작업을 실현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순환전기보충 가능 및 이동거리 제한이 없는 컨테이너 AGV를 개발하여 1억 위안 이상의 전기충전소(换电站) 건설비용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유형의 설비보다 중량 10여 톤을 감소시켰다. 또한 최초로 컨테이너 하역로봇을 발명하여 전반적인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실현했다. 처음으로 야드 크레인에 ‘원클릭 고정(一键锚定)’ 시스템을 장착하여, 대형설비들의 강풍에 재난 발생문제를 해결했다.

자동화터미널의 건설과 운영은 칭다오항의 ‘인터넷+’전략에도 부합된다. 인터넷 전략의 실시를 통하여 향후 칭다오항은 터미널의 하역, 항만 물류전자상거래 및 그룹의 사무관리 플랫폼의 3가지 면에서 정보화·인터넷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라는 시대의 슬로건에 맞게 ‘뉴노멀(新常态)’ 시대에서 항만의 새로운 강점을 발휘할 계획이다.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은 다수의 대기업이 공동 완성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은 칭다오항그룹에서 주도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수십 개의 합작 기업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이다.

2015년 6월 27일, 칭다오항그룹과 전화중공업은 전자동화터미널의 일괄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전화중공업은 1998년부터 자동화분야에 뛰어들어 2008년에는 자동화터미널 시범라인의 연구 및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3년과 2015년, 전화중공업은 샤먼, 칭다오와 상하이 자동화터미널의 건설 수주도 받았다. 전화중공업은 한 걸음씩 침착하게 중국 국내 자동화터미널의 공백을 메꾸며, 터미널사업의 ‘집대성자’로서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2015년 10월, 칭다오항그룹은 자동화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 Navis와 새로운 N4 터미널의 운행시스템 허가협의를 체결하였다. Navis는 Cargotec 산하 계열사인데 선진적인 터미널 운행기술과 서비스시스템으로 세계 선도적인 터미널 운영사들의 사업성과 효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 8월, 칭다오항은 랑차오그룹(浪潮集团), 레노보그룹(联想集团), H3C(华三通信) 등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데이터센터와 기초네트워크 건설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중, 레노보는 안정적인 제품(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 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X86 서버 System X)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민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⁶⁾들을 제시함으로써,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의 정보화 건설에 도움을 주었다.

칭다오항 자동화터미널은 건설 전부터 해운·항만업계의 대형기업들이 공동경영으로 운영되었다. 2015년 4월 3일, 칭다오항은 Dubai Ports World, COSCO Shipping, Maersk Line, CHINA Merchants Group 등의 기업들과 ‘칭다오치엔완스마트컨테이너터미널유한공사(青岛前湾智能集装箱码头有限公司)’라는 합자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치엔완 항만구역 4단계의 5번, 6번 자동화 터미널의 개발건설과 운영관리를 진행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발전추세의 영향으로 세계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대형선 시대에 진입했으며, 정박시간의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또한 터미널의 인공하역작업효율 저조, 노동원가의 상승이 초래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고성능·고효율, 낮은 운영원가 등 장점을 갖춘 자동화터미널의 탄생을 지속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에는 30여개의 자동화터미널이 건설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샤먼, 칭다오, 상하이의 3개 터미널이 건설완료 및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의 자동화터미널 건설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풀어가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동화, 스마트화 항만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단시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님을 강조했다.

뤄번청(罗本成) 교통운수부 수운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자동화터미널의 건설은 거대한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충분한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건설자금도 필요하지만 운영유지자금 및 관리자금을 포함한 예비자금도 필요하다. 또한 공예, 장비 및 제어기술을 포함한 선진적인 기술도 장악하여야 한다. 그 외, 전문적인 운영팀, 적합한 운행 모델, 양호한 보장조건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자료 : 航运交易公报, 2017. 5. 16.>

4 다롄항 3년간 ‘그린 항만’ 건설을 위해 7억 위안 투자

4만 m²의 ‘옥상 발전소’는 매월 20여만 볼트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5월 12일, 다롄항그룹의 다롄만 항만구역의 창고옥상에 설치된 분포식 태양광발전설비에서는 태양에너지가 부단히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옥상 발전소’는 항만생산을 위해 전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약 800톤의 석탄을 절약하며, 약 2,000톤의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킨다.

항만의 운송과 생산에는 대량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대기 질량 등의 문제도 세계 모든 대형항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다롄항은 전국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소’ 시범항만으로 지정된 이후, 3년간 7억 위안을 투자하여 항만의 인프라 건설, 하역운송설비 개선, 스마트화 시스템 운용, 청정에너지 이용 등 여러 면에서 ‘그린 항만’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큰 효과를 보였다.

다야오만(大窑湾) 컨테이너터미널은 중국 동북지역의 첫 고전압 가변주파수 해안 전력사업이 최근 정식 개시되었다. 기항선박은 주로 보조기계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선상의 냉장설비, 에어컨, 가열, 통신, 조명 등 설비의 전력수요를 만족시킨다. 하지만 유류 발전기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공기오염물을 배출하며 항만 및 소재 도시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추산에 따르면 선용 해안전력이 도입된 이후 항만에서는 매년 70여만 톤의 유류 연료가 절약되고, 질소산화물 8,000여 톤, 이산화유황 4,000여 톤을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레노보 그룹에서 개발한 ‘Dual-State IT’ 방법론 중의 하나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유류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및 천연가스로 전환하며, 태양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신기술, 신제품을 도입하는 ‘플러스’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롄항그룹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오수 처리, 먼지 제어, 연소가스 탈황 등 ‘마이너스’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1플러스, 1마이너스’ 작업은 ‘그린 항만’ 건설을 촉진시켰다.

벌크화물터미널 광석작업구의 역삼투압 기술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는 1일 급수량 1,200여 톤을 달성하였다. 10개의 하수처리설비 및 8개의 매설된 하수처리설비는 항만구역의 하수 처리를 책임지고 있다. 1,300여만 위안을 투자하여 건설한 천연 오일가스 회수시설의 처리율은 95%에 달한다. 높이 18m, 길이 1,000m에 달하는 방진벽은 석탄재, 광물성 먼지 등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약 1억 위안을 투자한 10만 m³의 저수시설은 석유오염을 억제하는 시설이다.

다롄항그룹의 소개에 따르면, 다롄항의 항만에너지 절약규모는 국가 기준의 7배 이상이다. 또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다롄항의 항만생산 체계는 21개의 중점사업을 완성함으로써 매년 약 1만 3,000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2,700톤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13·5’ 기간 다롄항그룹은 27개의 중점 ‘그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3년 내에 항만작업 선박이 전부 해안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에너지 등의 기술은 이미 전체 항만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된 상태이다. 항만생산 종합 단위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2010년에 비해 각각 17.4%와 56.2%가 감소되었다.

<자료 : 辽宁日报, 2017. 5. 17>

5

China Merchants Port와 SINOTRANS&CSC,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 진행

2017년 5월 15일, SINOTRANS&CSC와 China Merchants Port는 상하이에서 「공동발전 협력 협의」를 체결했으며, 이젠홍(李建红) 회장, 조후항(赵沪湘) 부회장, 후젠화(胡建华), 왕홍(王宏) 부총경리, 주종성(褚宗生) 총경리비서 등이 계약식에 참여했다.

SINOTRANS&CSC는 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 Port(이하 CMHI Port로 약칭)와 통합 후, ‘6개의 더욱’ 목표를 제시했다. 즉, 더욱 좋은 체계, 더욱 강한 실력, 더욱 큰 규모, 더욱 신속한 발전, 더욱 나은 이익,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이다. 게다가 해운 업무를 통합하는 동시에 그룹의 부동산, 항만 등 관련 업무분야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SINOTRANS&CSC와 CMHI Port는 ‘상호 이익, 공동 추구(互惠互利)’, ‘상호보완 및 상생협력(优势互补, 协作共赢)’의 원칙으로 네 가지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주강삼각주 지역 내하부두와 선시(深西)허브항 간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항만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SINOTRANS&CSC의 스룽(石龙)국제철도물류기지의 역할을 발휘하여, 화남(华南)지역에서 ‘스룽-선시항만’의 양방향 해-철 복합노선을 건설하는 동시에, 스룽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CMHI는 선전(深圳)보세물류 창고업무 발전을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넷째, CMHI의 ‘일대일로’ 건설 총체 계획 및 해외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해외 네트워크의 강점을 발휘하여, 해외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형성할 것이다.

2016년에 SINOTRANS&CSC는 글로벌 3위 해상포워딩회사로 부상했으며, CMHI Port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전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양자는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고, CMHI는 전략적 배치 실현을 통해 세계 일류 물류관리 제공 서비스업 및 세계 일류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招商局集团, 2017. 5. 17.>

6 국가해양국, <남극탐사활동 환경영향평가 관리규정> 발표

최근 국가해양국은 <남극탐사활동 환경영향 평가 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중국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들이 남극탐사활동을 전개하려면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및 첨부 문서에 규정된 국제법률 의무에 의하면, 제약국이 남극에서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남극활동이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남극탐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원구성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탐사활동의 방식도 더욱 사회화되고, 남극탐사활동에 대한 관리, 특히 남극환경보호 관리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게 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은 남극탐사활동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는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이 남극탐사활동 신청을 심사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은 남극탐사활동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은 환경영향평가표의 결과에 따라, 만약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시스템에 대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혹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어와 영어로 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신청하는 남극탐사활동이 남극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전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초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구분된다. 남극 건설, 연구기지 개조, 공항과 부두 등 대형 인공건조물 및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이 다른 남극환경과 생태시스템에 대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전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극환경에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은 감독·검사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해양행정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남극으로 남극탐사활동의 감독·검사 인원을 파견하고, 승인을 받은 남극탐사활동 및 이 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 평가문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활동을 전개하거나 환경영향의 예방과 감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실제 전개된 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시스템에 미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보다 더 심각할 경우, 현장 감독·검사 인원은 즉시 활동을 정지시키며, 규정된 기한 안에 남극을 떠나라고 명령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가해양행정주관부문은 해당자의 남극탐사활동 재개를 금지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7. 5. 25.>

7 <국가해양국 보하이(渤海) 생태환경 보호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국가해양국 보하이(渤海) 생태환경 보호 진일보 강화에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수출입총액 : 2010 ~2016년 푸젠 對타이완 수출입총액
- ▶ 전문가 칼럼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및 발전 방향
- ▶ 동향 & 뉴스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 <간척지 매립 관리통제 방법> 및 <해양감독방법>의 실행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보하이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보하이의 수질환경이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생태환경이 여전히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이고, 생태시스템의 서비스 기능도 전체적으로 하락되고 있다. 국가의 해양생태 안전 및 징진지(京津冀) 합동발전 전략을 고려하고, 환보하이 지역주민들의 민생·복지를 위해서 보하이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의견>은 여덟 가지 측면에서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공간계획을 조속히 편성·수정한다. 보하이의 성급(省级) 해양주체기능구 계획을 조속히 편성하는 동시에, 해역공간의 자원이용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제정한다. 또한, 보하이 지역의 성급 해안지대 종합보호와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에 대한 연합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보하이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불법적·불합리적으로 설치된 오염배출구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집중배출구역 및 생태배출구역을 획정하여 전체적인 정돈을 진행한다.

셋째, 해양공간자원에 대한 이용과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생태환경 진입장벽을 높이고, 과잉 생산력 및 에너지 다소비, 심각한 오염 및 오염배출이 심각한 프로젝트의 해양이용을 금지한다. 해역자원 이용방식을 친환경화·생태화로 전환 추진한다.

넷째, 해양생태 보호 및 환경 정비, 복원을 강화한다. 해양보호구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해양보호구의 분류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호구 내에서의 개발활동에 대한 전문검사와 정돈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해양생태 보호 보상제도의 수립을 추진하고, 도서보호 리스트를 조속히 발표하도록 한다. 해안선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에 대한 관리·통제 목표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격한 보호, 제한개발과 최적화 이용에 맞는 세 가지 해안선 종류로 획정한다.

다섯째,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현장 및 그 이상의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하며, 해양환경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점 구축한다. 또한, 보하이 해양생태에 대한 기본조사와 제3차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보하이 지역의 차별화된 오염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해양환경 품질에 대한 종합평가방법을 보완한다.

여섯째,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리스크 예방·통제를 강화한다. 보하이 해상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주요 해양공정의 환경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엄격히 관리·통제해야 한다. 해양 응급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보완하며,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유형구분을 실시한다. 또한, 구역별로 등급에 따라 해양생태 재해응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보완한다.

일곱째, 해양에 대한 감독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제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 해양감독제도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간척지 매립의 관리·통제 조치, 중요한 하구·해만에 대한 정돈, 자연해안선의 관리·통제 목표 및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의 실시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또한, 보하이 연안 해역의 수질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 관리·통제 목표 책임제를 수립한다.

여덟째,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의 핵심문제에 관한 연구와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와 정돈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보하이 자원, 환경 등 핵심문제에 대한 연구능력을 육성함으로써 생태환경보호 이론, 정책, 제도 및 기술연구에 있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